

團領 및 擎衣 縫製에 關하여

鄭 光 熙

序 盧泳敬 團領의 裁量 및 縫製	<目 次> 李瑞廈 擎衣의 裁量 및 縫製 結
----------------------	-------------------------------

序

여기서는 우리服飾學研究에 한 資料가 될 肅宗朝의 擎衣와 高宗朝의 常服(冠服)인 黑團領의 遺物을 構成面으로 調査하여 그 裁量과 縫製法을 究明하고 하나의 記錄을 作成 保存하는 것도 後日을 위하여 意義있는 일이라 생각되므로 여기에 그 結果를 發表하는 바이다.

韓末 團領 縫製에 대하여 對象物인 團領은 朝鮮王朝 末 高宗十四年(西紀1877年)에 文科에 登第하여 弘文館 修撰에서 承政院 承旨를 거쳐 慶州府尹과 宮內府 特進官 등을 歷任한 盧泳敬先生께서 在任時 直接 着用하셨다는 遺物로서 先生의 體溫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듯하다.

先生의 本貫은 光州이고 後孫들이 現在 大邱市 南山洞에 居住하고 있는데 曾孫 盧載孝先生과 高孫 盧龍九氏이다. 後孫들의 말에 依하면 先生이 弘文館 修撰官으로 在職時 甲申政變(西紀1884年)이 突發하여 入直中이던 先生께서 晝夜三日間 高宗殿下를 侍衛하던 中 流彈이 冠服 어깨 쪽을 스쳐갔다는 由緒 깊은 옷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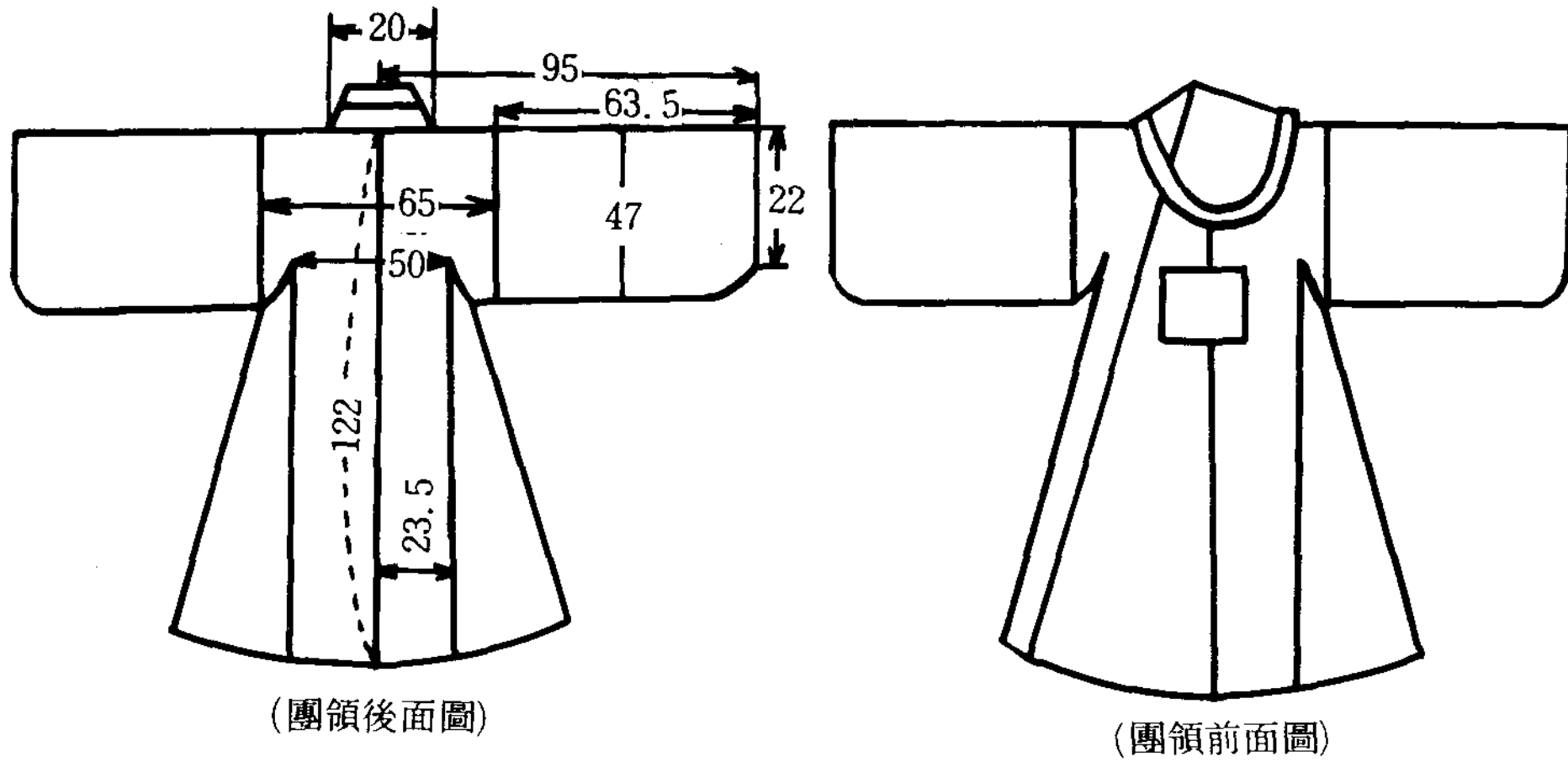
그런데 盧泳敬先生의 團領衣는 單純한 黑色이

아니다. 暗青色에 雲紋을 놓아 곱게 짠 갑사(甲紗)로 이것이 雅青色이 아닌가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文獻上으로는 黑團領이라 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暗青(鴉青)色團領을 使用하고 있었다는 事實을 알게된 것은 한 成果라 할 수 있다.

盧泳敬 團領의 裁量 및 縫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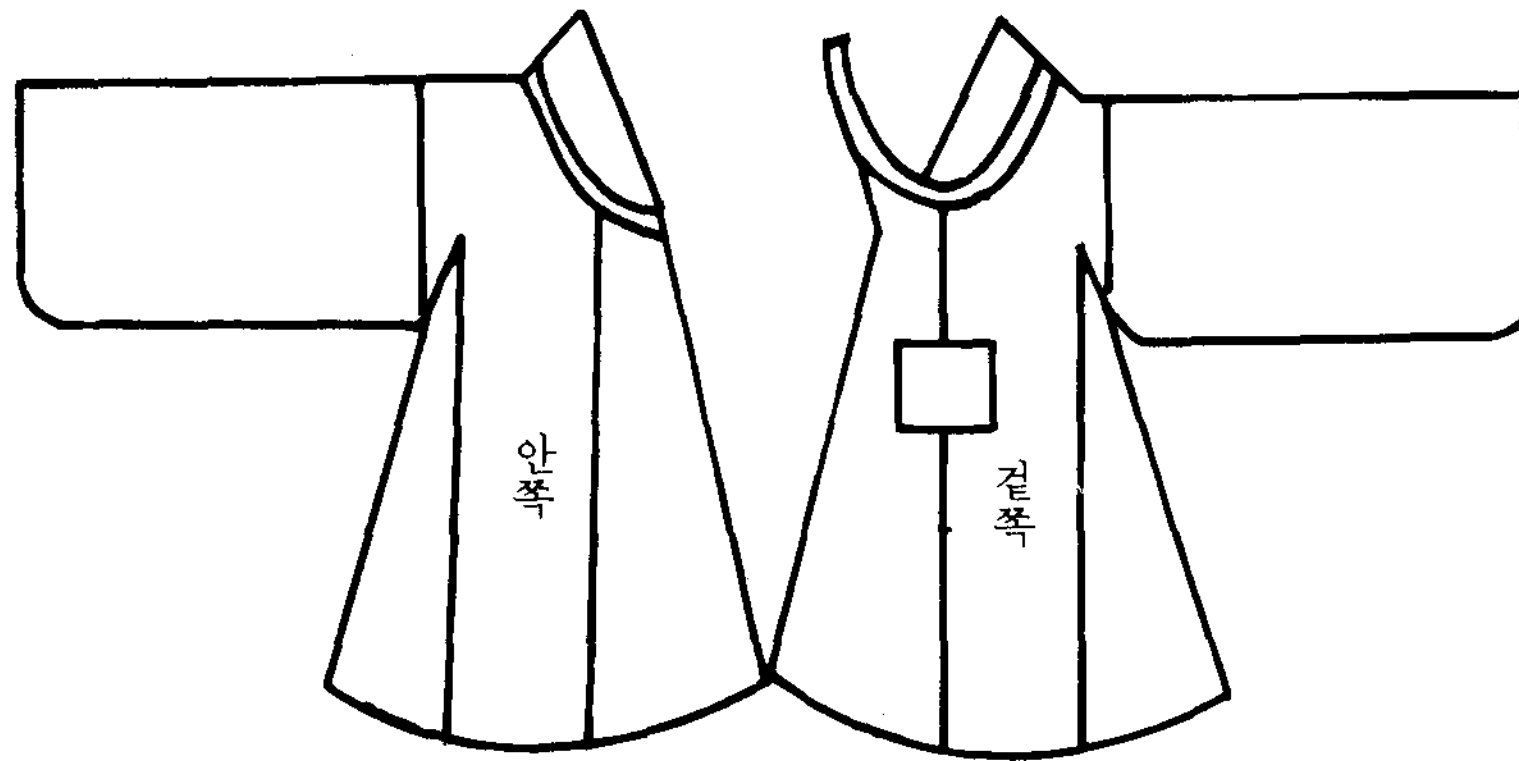
先生의 團領服은 雲紋을 놓아 곱게 짠 暗青色(북청색)의 갑사로 지었는데 안감은 꼭 같은 갑사이나 色이 藍色인 것이 다르다. 그리고 構成形態에 있어서는 안의 것이 直領인데 겉것은 團領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藍色直領을 暗青色團領안에 附着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안의 直領은 반달깃으로 되어있고 거기에 흰 明紬로 넓은 띠를 달았으며 길 옆쪽에 넓은 무를 앞과 뒤에 달았는데 겨드랑에서 반으로 접어 뒤쪽으로 넘긴 것이 普通袍衣와는 相異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다음 各部位의 裁量(치수)를 적어보면 총기장...122cm 화장...95cm 고대...20cm 품...50cm 진동...28cm 소매길이...63.5cm 소매넓이...47cm 걸선평이(下)...41cm 안선평이(上)...13cm 걸선평



(團領後面圖)

(團領前面圖)



(左右分解圖)

넓이(上)…13cm 안넓이(下)…38cm 무넓이(上)…18cm 무넓이(下)…53.5cm 부리…22cm 겹깃길이…128.5cm 안깃길이…84.5cm 겹깃넓이…4.5cm 안깃넓이…23.5cm 겹넓이…80cm 고름길이10.0cm 고름넓이…8cm 동정길이…75.5cm 동정넓이…10cm 등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등근 겹깃왼쪽 끝에 같은 감으로 만든 매듭단추를 달고 오른쪽 고대 끝 밑쪽에 끈고리를 달아서 꿰도록 되어있고 양쪽 겨드랑 밑에 같은 감으로 넓이 3cm의 짧고 긴 두개의 끈과 넓이 1.5cm의 끈고리를 달았는데 이것은 冠帶를 두르는데 쓰이는 것이다. 마름질은 다음 圖表와 같이 作成하였으며 바느질법은 다음과 같이 하였는데 그 手法이 오늘날 미싱이 無色할 程度로 纖細精巧한 솜씨에는 實로 感嘆하지 않을 수 없다.

〈어깨〉 솔기없이 그대로 한다.

〈등솔호기〉 고대에서 도련을 향하여 호아 흠질하여 앞에서 뒤쪽으로 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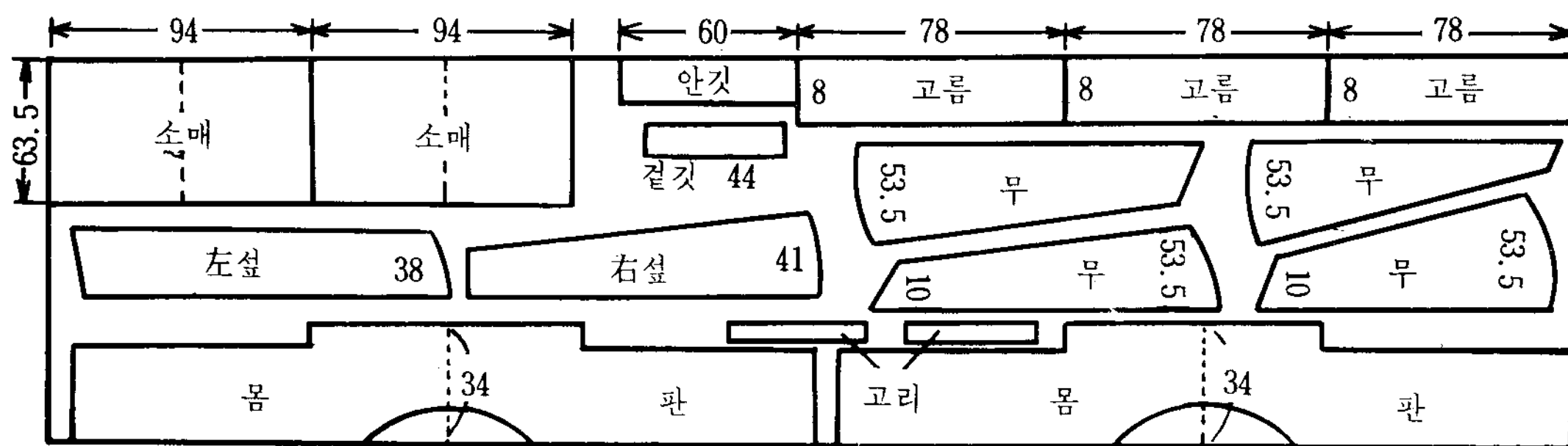
〈섷달기〉 겹섷은 곧은 쪽을 길에다 붙여서 섷 쪽으로 단령깃까지 꺾어단다. 안섷은 어손쪽 솔기를 길에다 대고 호아서 겹섷 쪽으로 꺾어단다.

〈깃달기〉 사선으로 마른것을 안귀곁으로 붙인 다음 꺾은 중심에 실줄을 넣어서 둥글게 손으로 곱게 박아단다. 오른쪽 어깨에 끈고리를 넣어 같이 박는다. 안깃달기는 반달깃으로 단다.

〈진동붙이기〉 길에다 진동의 호아서 가름솔로 붙인다.

〈배래호기〉 소매는 부리 22cm를 남겨두고 콩태를 돌아가며 둥글게 호아서 겨드랑의 콩태와 같은 모양으로 한다.

〈무달기〉 직선을 길에 붙여 겹섷 쪽으로 꺾어달고 옆쪽에는 35cm정도 터놓는다.



(團領마름질圖)

〈도련꺾기〉 양쪽 옆솔을 맞추어 편편하고 반듯하게 꺾는다. 안설이 빠지지 않도록 끝을 1cm 정도 올린다.

〈안끼기〉 편편하게 펴놓고 도련과 양옆의 무중심이 각각 트이도록 겨드랑 밑까지 맞춘다. 안팎을 붙여 흠질한 다음 소매를 포개고 배래를 붙여 고대로 뒤집어 소매부리는 결소매의 안단을 넘겨서 부리를 공구린다.

〈무처리〉 양옆에 트인 무를 위에서 공굴러 떠서 양쪽이 붙게한 다음 위를 사선으로 접어서 (10cm) 뒤겨드랑 밑에 사선으로 놓아 공굴러 붙인다.

〈고름달기〉 왼쪽고름은 겨드랑 높이와 같은 위치에 오른쪽 고름은 깃끝쪽에 박아단다. 안고름은 왼쪽 겨드랑 밑에 반을 접어서 무에 끼워달고 한쪽 고름을 안깃 끝에다 1.5cm 걸쳐서 박아단다.

〈동정달기〉 안깃에 10cm 넓이의 흰 감으로 1.5cm 호아 넘겨서 겹으로 떠서 단다.

〈끈, 고리달기〉 양 겨드랑 밑에 겨드랑 밑을 싸서 길고 짧은 두께의 끈을 박아단다. 그리고 고리는 어깨에서 26cm 진동에서 9cm 간격의 점에서 5cm 길이의 고리를 양쪽에 박아단다.

〈흉배달기〉 흉배는 고름 반위치 높이에 설솔기 중심에 붙인다.

李瑞夏 弊衣의 裁量 및 縫製

朝鮮王朝 19代王 肅宗 十二年에 右議政에서 左議政이 된 李端夏先生의 字는 季周 號는 畏齋이며 德水李氏로서 文忠公이라는 諡號를 받으신 분으로 그분이 着用하였다는 弊衣와 그의 婦人이 입었던 禮衣圓衫과 누비저고리 및 도토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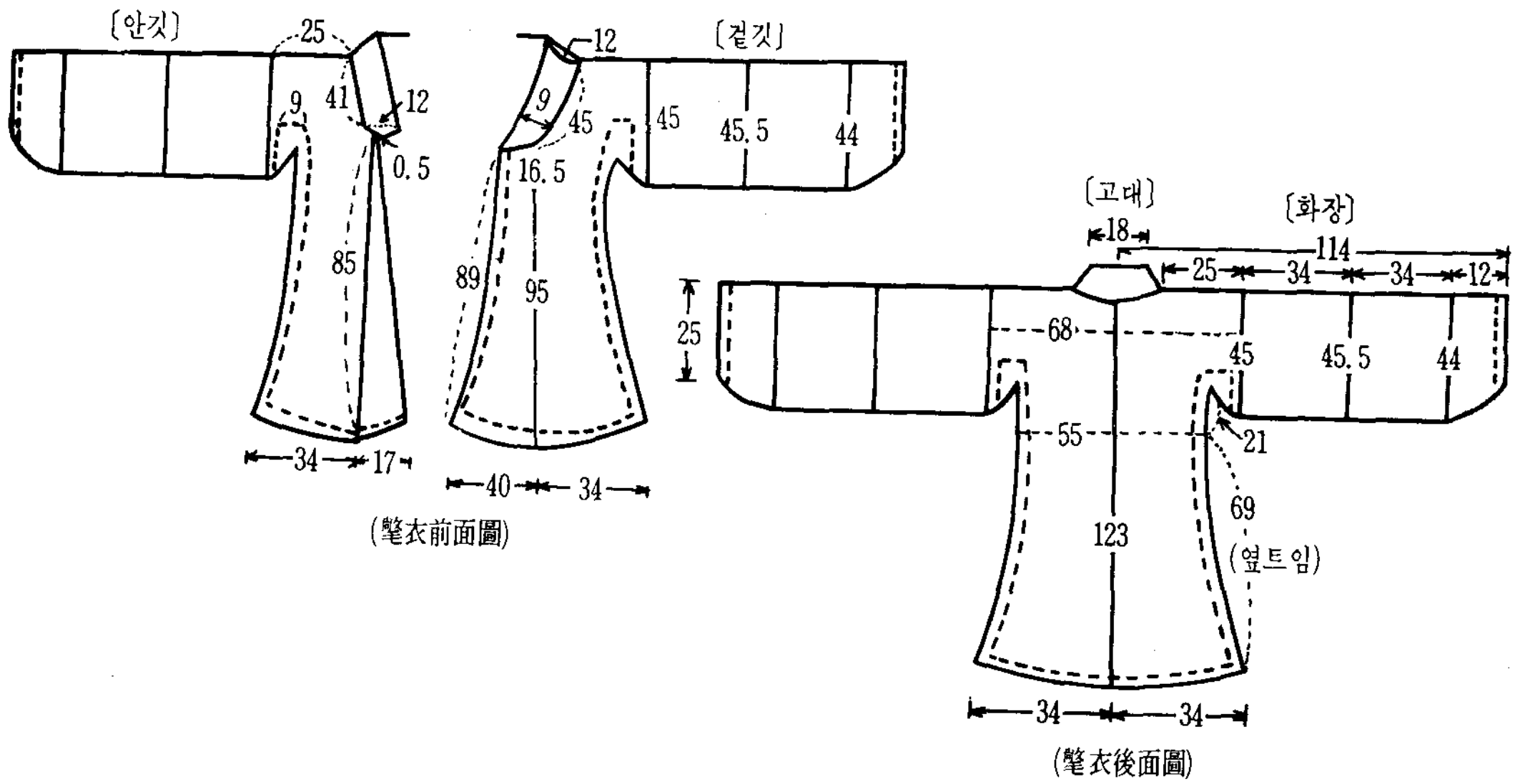
기등 遺品 五點이 현재도 수장되어 있다. 이 遺品등은 1969年7月에 民俗資料 第四號로 指定되어 江原道 旌善郡 臨溪面 逢山里 216番地에서 居住하는 先生의 九代宗孫 李鍾厚氏의 住宅內에 있는 木造기와집 古屋인 守孤堂內에 保管되어 있다.

畏齋는 仁祖三年(西紀1625年)에 京畿道揚平郡 場東面內谷里에서 出生하여 顯宗 3年(1662年)에 文科에 及第하고 肅宗元年에 副提學을 거쳐 吏曹參議로 昇進하였으나 東人 西人의 黨爭이 熾烈한 때이라 服喪是非에 關聯되어 一時 羅職되었다가 五年後에 再登用되어 弘文館提學이 되고 肅宗十年에 禮曹參判, 十二年에 右議政을 거쳐 左議政이 되고 行判敦寧府事로 昇進하였으나 黨爭關係로 罷職되어 3年後인 肅宗十五年(1689年)에 享年 65歲로 別世한 것으로 되어있다.

畏齋가 着用하였다는 弊衣는 삼베(麻布)로 지었으나 울이 굵은 麤布도 아니고 細布도 아닌 中間層에 屬하는 布이다. 앞과 뒷길에 무가 없으며 양옆이 겨드랑이까지 트인 앞뒤 3幅의 길로 되어있다. 소매는 대단히 길고 넓으며 설과 도련 옆트기에는 같은 삼베로 선단을 들렀으며 그 치수는 아래와 같다.

총기장...123cm 화장 ...114cm 고대...18cm 뒷 품...68cm 진동...30cm 소매넓이...45.5cm 결설 넓이(下)...40cm 결설넓이(上)...16.5cm 안설 넓이(下)...17cm 안설넓이...0.5cm 부리...25cm 깃 길이...104cm 안깃길이...41cm 결깃길이...45cm 결설길이...95cm 안설길이...85cm 깃넓이...12cm 겹고름길이...95cm 안고름길이...52cm 겹고름 넓이...7.5cm 안고름넓이...3cm 옆트기...69cm 등으로 되어 있다.

弊衣를 幅35cm의 麻布로서 다음과 같이 마름



하였더니 12.5m가 所要되었다.

바느질 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어깨> 솔기없이 그대로 한다. (여기서는 재료 관계상 솔기가 생겼음)

<등솔호기> 고대에서 도련을 향하여 흠질하여 가름솔로 한다.

<등바대> 푸새쪽을 진동에다 1cm 정도 붙이고 치세쪽은 그대로 둔다.

<섷달기> 겉섷은 끈은 쪽을 길에다 붙여서 섷 쪽으로 꺾어 인두질하고 안섷은 어순쪽 솔기를 길에 대고 호아서 길쪽으로 꺾어 인두질한다.

<깃달기> 미리 꺾어 마련된 깃을 고대에 놓고 겉깃 끝을 고정된 뒤 고대선을 따라 풀로 붙인

다음 박는다.

안깃은 고대에서 곧게 놓아 현대의 두루막 깃과 같은 모양으로 붙인다.

◎ 겉깃은 다른 옷의 깃들과는 달리 깃머리가 좁고 고대가 약간 넓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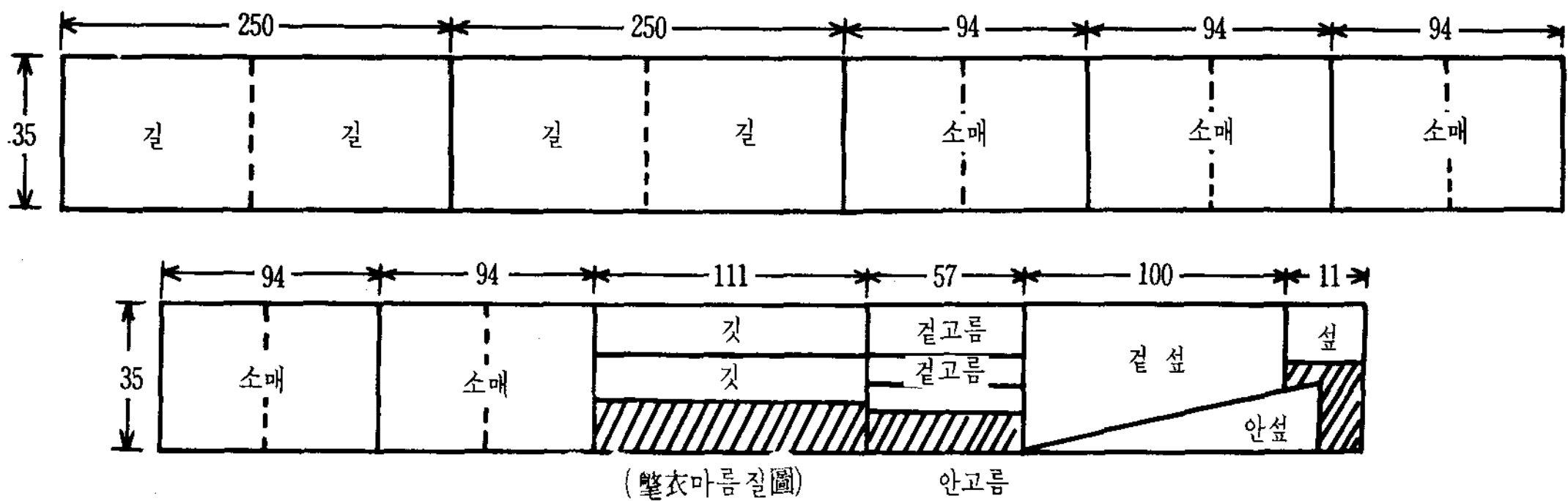
◎ 안깃 모양은 보통 두루막 깃과 같으며 그 림과 같이 0.5cm정도 겉으로 박음질한다.

<진동달기> 길에다 소매를 붙여 가름솔을 한다.

<배래호기> 부리끝에서부터 터지지 않도록 소매 배래를 둥글리어 박아서 겨드랑을 약간 둥글리어 겨드랑까지 박는다.

<도련꺾기> 양쪽 옆솔을 맞추어 편편하고 반듯

35cm幅 1250cm要(길×4+소매넓이×10+깃+고름길이+섷길이+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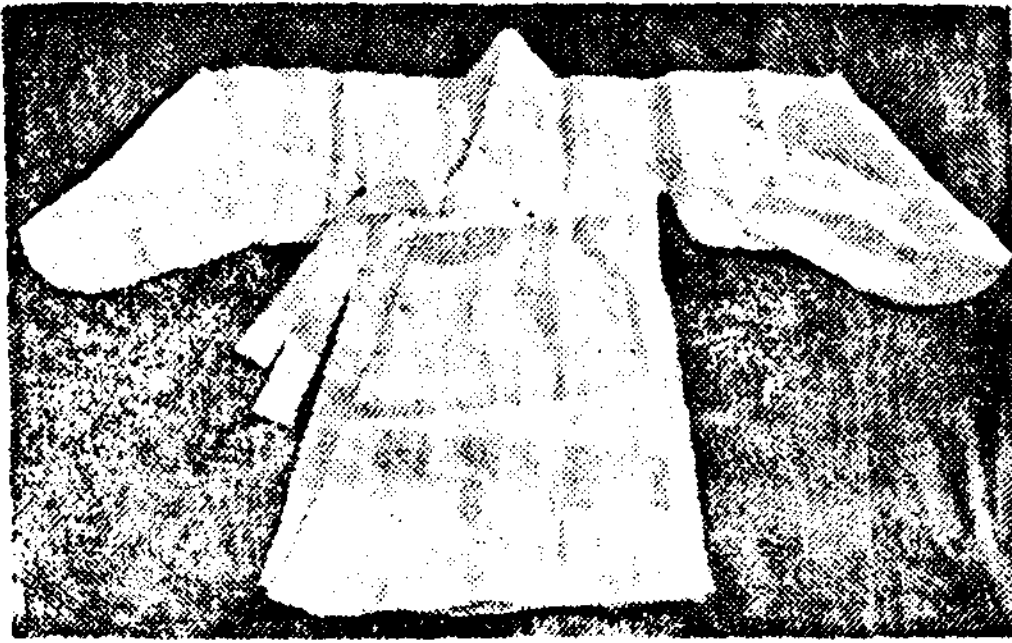
하게 꺾는다.

안섵이 빠지지 않도록 1cm정도 올린다.

<고름달기> 겹고름은 겹깃쪽에는 깃끝과 맞추어 단다. 안깃쪽에 깃은 겨드랑이 바대 속에 겨박는다.

속고름은 다른 옷과 같으며 고름의 솔기는 아랫쪽으로 가게 한다.

<선단두르기> 겨드랑이와 아래 선단은 5cm로



(擎衣擬製品圖)

하고 옆트임 한 곳과 겹섵 쪽은 4cm로 한다. (안섵 쪽은 선단을 두르지 않는다.)

현대 두루마기와 비교하여 특이한 점은 양 옆이 트이고 동정이 없는 점이다.

結

朝鮮王朝의 冠服은 中國 明나라 制度를 踏襲한 것으로 其中 常服 團領은 婚禮時 新郎 禮裝으로 紗帽 冠帶를 했는데, 高宗朝 黑團領은 鴉青色이 主였음을 알 수 있다.

畏齋의 袍衣는 士大夫層에서 外出時에 다른 袍衣의 밑옷으로 겨입었고 집안에서는 옷옷으로 입었으며 庶民層에서는 外出時 옷옷으로 입었음을 알 수 있는데 肅宗朝에 該當하는 畏齋先生의 遺物인 擎衣를 調査하고 이에 대한 縫製法을 記錄하여 保存하는 것도 여러가지 面에 意義있는 作業이라 생각하는 바이다.